

욕망 향해 질주하는 인간 허상 조명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첫 작품 '꿈'

삼국유사 속 원효와 의상, 소설 <꿈>을 쓰는 춘원 이광수, 그리고 <꿈> 속의 조신 이 시공간을 초월해 한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 (작 김명화·연출 최용훈)이 9월 1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펼쳐진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춘원 이광수는 친일분자라는 비판을 받고 불안과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

독립운동 하던 과거의 자신과 변절자가 되어 세상을 피해 숨어있는 현재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날 낙산사 관음보살을 배경으로 뜬에서 마감을 쓰는 조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춘원은 삼국유사의 조신지몽을 소재로 작품을 써나가며 조신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소설이 점점 절정에 오를수록 춘원은 조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 욕망에 순응한 춘원과 조신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다.

연극 '꿈'은 욕망과 금기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 국가 양심을 넘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원효 스님은 욕망에 따

라 요석공주와 선을 넘었고,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사랑하여 파계하고 결혼을 선택했으며, 월례는 결혼 전 조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이광수는 '28 독립선언문'에 참여했으나 결국 친일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욕망의 실현 뒤에 따르는 것은 고뇌와 번민뿐이다. '꿈'은 욕망대로 행동한 인간을 통해 성과 속, 선행과 악행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 인간 깨달음의 문제를

춘원·조신·원효 스님 통해
욕망과 금기 사이 방향 그려내
16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 (작 김명화·연출 최용훈)이 1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삼국유사 속 원효와 의상 스님, 소설 <꿈>을 쓰는 춘원 이광수, 그리고 <꿈> 속의 조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한무대에 오른다.

를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꿈'은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기본으로 여기에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더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다. 또한 신라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신화적 상상력과 역사 고증을 통해 두 시대를 절묘하게 매치시킨다. 삼국유사 이야기 속의 인물과 '꿈'을 소재로 소설을 쓴 소설가 이광수와

최환선을 등장시켜 신라와 식민지 시대의 공존적 연관성을 만들어내며, 역사를 통해 현대 한국사를 날카롭게 투영한다. 또 한편으로는 순결한 청년 춘원이 노년의 춘원에게 칼을 겨누게 함으로써 논쟁적 인물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열어준다.

이번 무대에는 연극배우로 절정을 맞은 배우 강신일, 남명렬이 출연한다. 연료이

더할수록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는 두 배우가 같은 무대, 그것도 친구로 출연하는 일은 앞으로 드문 일이 될 것 같다. 또한 '뽕밭' 등의 히트작을 통해 오랜 콤플렉스를 자랑하는 최용훈 연출과 김명화 작가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1688-5966

정혜숙 기자 bwjsh@hyunbul.com

“브로드웨이 넘을 뮤지컬 기대”

자승 스님, 생화별곡 연습 현장 격려 방문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9월 3일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진한 우정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생화별곡'의 연습현장을 찾았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임시 관람석에서 하이라이트 시연 장면을 지켜봤고, 웃음 박수로 배우들을 격려했다.

시연 후 자승 스님은 “뮤지컬 ‘원효’보다 안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다”며 “배우들의 연기가 자신감이 넘치고 장악력이 있다. 브로드웨이를 뛰어넘을 공연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서울 공연이 짧은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왔으면 한다. 총무원도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화별곡’은 오는 9월 11일부터 30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생화별곡' 연습현장을 방문 출연진들을 격려했다.

일까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오는 11월 7일 중국 심천 보리극원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동국미술인 작품 한 자리에

9월 18일까지 경인미술관서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등재 기념을 위한 제10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이 열린다. '마음의 등불'전이 9월 12~18일까지 인

사동 경인미술관 2관에서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지난 19년 동안 회화, 단청, 조각, 공예 등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격년제로 정기 회원전을 개최하며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렸다. 이번 10회 회원전은 우리 불교의 전통 축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 참여 작가로는 ▷회화·단청에 양용호(서울시 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연호(일설문도회 회장), 이연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이수자) 외 8명의 회원과



서철교 작 '수하람마'

▷조각에 허길량(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인정),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120호 석장), 송근영(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 회장) 외 6명의 회원 ▷공예 분야에 심용식(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 김영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석장), 소병진(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주장) 등 다양한 불교미술 분야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24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적 글쓰기로 창작의 기쁨 되찾아

불교문학창작교육원 현장

“25년 전 주부백일장, 마로니에백일장 등에서 장원을 받을 만큼 글 실력을 인정 받았어요. 작가로 데뷔하고 싶었지만 시부 모님 불양하며 사느라 뜻을 펼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삶에 회의를 느꼈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때 화계사에서 5년 넘게 경전공부를 하며 제 자신을 찾았죠. 그리고 이렇게 불교적 시각으로 글쓰기를 배우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 17생 마순숙 보살



장기오 PD의 드라마 강의 장면

BATI는 도제시스템을 적용 후배작가 양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3단계 18개월 교육 과정을 통해 내부 작가 인증서를 수여한다.

전연호 수강생은 “불자로서 늘 불교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관이 없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 글쓰기 공부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며 소감을 전한다.

이제 BATI는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4일 개강을 앞둔 BATI는 소설, 동화, 수필, 시, 드라마, 방송구성작가 지망생들을 모집한다.

주 1회 6개월 총 24회와 1회의 평가로 구성되며 18개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작가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강좌에는 ▷김재영 동방대교수 ‘부처님 생애’ ▷남지심 작가의 소설 및 동화 반 강의 ▷장기오 前 KBS PD의 방송 드라마 및 구성 강의 ▷장영우 동국대 문창과 교수의 소설 강독 및 작품 분석 강의 ▷정찬주 작가의 소설 동화 반 강의 ▷천양희 시인의 ‘시 수필 강의’가 진행된다.

(070)8880-8202 정혜숙 기자

민추본 미디어콘텐츠 공모

10월 5일 접수 마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2012 상생과 공존을 위한 ‘평화 통일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작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 평화 통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응모도 가능하다.

응모 분야는 UCC영상, 홍보이미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출품규격은 영상 해상도 720×480, 1280×720 이상, 파일형식 wmv, avi, mp4 등 재생가능한 영상이다. 이미지 해상도 300dpi 이상, 크기는 A4이상 규격이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원본파일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이메일peacecontest2012@gmail.com 접수하며 응모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통일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원, 우수상(현대아산 대표이사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 상금 20만원, 참가상 10명에게는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15일이며 시상 및 전시회는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진행된다.

작가 지망생 창작 열기 뜨거워

교수, 전직PD 등 우수 강사진 포진
24일까지 2기 수강생 모집

행하며 불교문학에 목말라하는 작가 지망생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인데 결석도 한 번 없이 너무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저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4일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불교문학창작교육원(Buddhist Author Training Institute, 이하 BATI)에서는 장기오 PD의 드라마 강의가 한창이었다. 캐릭터 설정, 플롯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전국에서 모여든 수강생들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

남지심 원장은 “문학은 불교 속에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방편을 통해 그 진리를 다양하게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강좌를 진

재즈와 함께하는 산사의 가을밤

구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개최

경북 구미 도리사(주지 범등)에서는 아도다레제를 기념하고 불교의 맛을 전하고자 제 10회 ‘솔바람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15일 태조산 도리사 경내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는 사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매혹적인 재즈보컬리스트 ‘운산’, 첼리스트 ‘이성희’, 색소폰리스트 ‘김영찬’과 더재즈 오케스트라(The Jazz Orchestra)의 감미로운 재즈콘서트가 산사를 찾는다. 프로그램은 ▷더재즈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재즈 콘서트 ▷매혹적인 재즈보컬리스트 ‘운산’과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재즈 가수 운산과 함께하는 구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신비의 섬 울릉송담복지타운과 함께 할 가족을 모십니다

요양보호사 00명 · 간호사 0명 · 물리치료사 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격증
☎ 문의 054)971-8730 / FAX 054)971-0355
또는 메일 lotus0203@hanmail.net
숙식 제공 1인 1실. 급여 사회복지시설기준법에 준함

사회복지법인 迎佛院 울릉송담복지타운 산하시설

- ▷ 송담실버타운(노인요양원)
- ▷ 송담재가복지센터
- ▷ 다문화센터
- ▷ 재가노인복지센터
- ▷ 요양보호사 교육원
- ▷ 울릉신문사
- ▷ 울릉, 독도 인터넷 뉴스

■ 울릉도 여행시 조계종스님 숙박 무료제공 해 드립니다. (복지타운 내 별관)
☎ 문의 054)971-8730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선택

설치가 편리한 고정형 후크

소형성취 인등 및 사리함

고추구 12B 인지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불룩 전선 10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국산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
▶ LED전구, DC 3V 백색·노랑·빨강

▶ 평생, 탐들이,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